

文 대통령, 7개 부처 '최대 개각'

靑, 행안 진영·중기 박영선·국토 최정호·통일 김연철·문체 박양우 등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정부 부처 7곳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2명의 차관급 인선도 함께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에 4선 의원인 박영선·진영 의원을 각각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7개 부처의 개각을 단행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박양우 전 문화부 차관을,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최정호 전 국토부 차관을 각각 승진 내정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문성혁 세계해사대학 교수를, 통일부 장관에는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을 각각 후보 지명했다.

이번 정부 들어 3번째 개각으로, 역대 이뤄진 개각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김 대변인은 "이번 개각은 문재인 정부의 중반기를 맞아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성과를 위해서는 능력이 검증된 인사를 발탁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개각의 콘셉트를 설명했다.

경남 창원 출신의 박영선 중소벤처부 장관 후보자는 구로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4선 의원이다. 수도여고와 경희대 지리학과를 거쳐, 서강대 언론대학원을 졸업했다.

MBC에 입사해 방송기자의 길을 걸었다. 경제부·국제부 기자, 로스앤젤레스(LA) 특파원을 지냈다. 2004년 17대 국회 때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 내리 4선에 성공했다.

세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국회 법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대선에선 문재인 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당선을 도왔다.

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전북 고창 출신으로, 서울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거쳐 미국 워싱턴주립대 법학대학원을 졸업했다.

사법시험 17회 출신으로 법조인의 길을 걷다가 1997년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 후보 정책특별보좌역으로 본격적인 정치에 뛰어들었다. 17대 국회 때 서울 용산에 당선돼 재선에 성공했다.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2013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다.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종인 민주당 비대위원장의 영입으로 당적을 민주당으로 옮겨 4선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8일 오전 정부 부처 7곳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성공했다.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 공동선대위원장 겸 공동인재영입위원장을 지냈다.

정통 관료출신의 박양우 문화부 장관 후보자는 인천 제물포고와 중앙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영국 시티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한양대에서는 관광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시23회 출신으로 문화체육부(現 문화체육관광부) 기념물관장, 국제관광과장 등을 지냈다. 문화관광부 공보관, 관광국장, 문화산업국장을 역임했으며, 참여정부 때 문화관광부 차관에 올랐다. 현재 문화부 조직문화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다.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배문고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전기 및 전자공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희대 전자계산공학과 교수, KAIST IT융합연구소장, 한국통신학회장을 역임한 정보통신 분야 권위자로 평가받는다. 현재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강원도 통해 출신의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강원 북영고를 졸업했다.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동 대학원에서 정치외교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삼성경제연구소 북한연구팀 수석연구원을 지냈으며,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의 통일외교위원을 맡았다.

이후 2004년 당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경력이 있

다. 인재대 통일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 통일연구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대표 저서로는 '냉전의 추억(2009)', '70년의 대화(2018)'이 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전북 익산 출신으로 금오공고를 거쳐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영국 리즈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광운대에서 부동산학으로 박사를 받았다.

행시 28회 출신으로 1995년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 수송정책실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항공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박근혜 정부에서 국토부 제2차관까지 올랐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전북도 정부부처를 지내기도 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해양·상선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서울 대신고를 거쳐 한국해양대 항해학과를 졸업했다.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영국 카디프대학에서 공학박사를 받았다.

현대상선 1등항해사, 한국해양대 해사수송과학부 교수를 지냈다. 참여정부 인수위원회에서 자문위원을 맡았고, 이어서 대통령 자문기구인 동북아시아위원회 전문위원을 맡기도 했다. 현재는 세계해사대학(WMU) 교수로 재직 중이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2명의 차관급 인선도 함께 단행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는 이의경 성균관대학교 현 제약산업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장은 최기주 현 국토교통부 버스산업발전협의회 회장을 임명했다.

/뉴시스

스타트업 - 청년인재 매칭으로 두마리 토끼 잡는다

전북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 구인·구직난 해소

전북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창조센터)는 도내 스타트업과 청년인재 매칭을 통한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한다.

이해 창조센터는 스타트업의 구인난과 청년인재들의 구직난을 해소하기 위한 참여기업을 현재 모집하고 있으며, 이후 직원채용이 필요한 스타트업과 일자리를 찾는 청년인재들을 한 곳에 모아 현장에서 스타트업-청년인재를 연결하는 소규모 채용박람회 '매칭데이' 행사를 통해 일자리를 공급할 예정이다.

스타트업의 신청자격은 도내에서 창업한지 7년 이내, 계속근로자 5인 미만의 기술 기반 스타트업·벤처기업이며, 신규채용 시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한 기업이어야 한다. 청년인재는 만18세 이상 만39세 미만인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본 사업은 미취업 청년 15명을 지원하며 스타트업이 청년인재 채용 시 1인당 약 1200만원, 스타트업 당 최대 2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사업에 신청한 청년인재들에게 취업역량 강화 교육, 직무능력 강화

교육, 자격취득 교육 지원 등의 '구직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무료로 지원한다. 도 김미정 일자리정책관은 "지역 내 유망 스타트업 및 신생벤처기업들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들의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며, "우리도는 도내 스타트업 직접고용 지원으로 고용 창출과 청년인재 채용에 힘을 쏟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발전된 지원 사업을 기획해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스타트업 청년인재 매칭사업 신청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지원본부(063-220-8948)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성 기자

남북교류 재개 대비 기존 발굴사업 세부 추진계획 마련

전북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개최

전북도는 지난 8일 전북도청에서 2019년 제2차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정부 대북정책 방향을 주시하며 도와 북한 간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차분히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원택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도의회, 언론, 학계, 대북전문가, 각계각층 대표자 등 15명이 참석해 정부의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추진 방향 설명을 듣고 전라북도의 남북교류협력 발전방안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최근 남북교류 협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역할 역시 점차 커지고 있다고 보고, 도의회 및 시군 등과 적극적인 소통과 전

문가 그룹의 자문을 통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지난해 10월 도에서 발굴한 21개 남북교류협력 사업 중 우선추진 대상 6개 사업을 선정하고, 금년에 중점 추진하기 위해 전북연구원, 통일부 등과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우선추진 대상사업은 지난 2016년 전북도에서 추진 검토했던 사업과 전북도 감점분야, 대북제재를 받지 않는 문화체육분야 사업 등을 기준으로 하여 △남북 태권도 교류 정례회, △북한 산림복원 사업, △자원순환형 낙농단지 조성, △기축전염병 방역약품 및 수의방역기술 지원, △전북 및 북한 전통문화예술 교류, △남북 스포츠 재능 기부 등 6개 사업이다.

한편, 도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군과 공동 출연하

/김진성 기자

전북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본격 가동

전북도가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2019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본격 실시한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일반 도민들에게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예방교육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을 받은 도민이 '나'의 행동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주변에 관심을 갖고 지역 안전과수꾼으로서 예방을 실천하여

성폭력,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

도는 올해 성폭력예방교육 210회, 가정폭력예방교육 35회 실시할 계획으로, 민간기업 종사자, 노인, 장애인, 학부모, 소상공인 등 폭력예방교육 비의무대상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내일은 전북도 교육지원기관인 여성긴급전화 1366전북센터 주관으로 '제1

차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전문가 워크숍'이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개최된다. 워크숍에 참여하는 강사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로 위촉받은 강사들이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문의나 신청은 전라북도 지원기관인 여성긴급전화 1366전북센터(☎063-227-2044)나 인터넷사이트 예방교육통합관리 홈페이지(she.mogef.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진성 기자

새 학기 맞아 학교주변 위해업소 합동점검 실시

전북도는 새 학기를 맞아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주변 식품취급업소 및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8일까지 합동점검과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도 특별사법경찰과 생활안전지킴이로 구성된 2개반 30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어린이보호식품 제조가공업소 48개소, 학교주변 식품점업소 60개소 등 총 128개소를

대상으로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무신고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청소년 주류 판매, 불법 고용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무표시 제품 사용 1개소, 무신고 제품 판매업소 1개소를 적발하였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